

## 反맑스主義的 CH氏流의 認識, 批判, 規定論을反駁함(二)

朴衡秉

나, 社會形態를 엇 던方法으로써 批判規定할것이나?

一

우리는 한 社會形態를 分析 解剖할때에 爲先 그 社會의 本質을 잘 理解하여야 한다. 그 社會의 本質을 잘 理解한뒤가 아니면 그 社會의 形態를 正確히(科學的으로) 分析解剖하기 不能하다. 換言하면 『마치 醫師가 病者의 病그것의 本質 잘 안뒤가 아니면, 그 病을 自信있게 治療를 하거나 쪼는 手術을 하기 不可能함과』 同一하다. 그럼으로 萬一 社會의 本質을 잘 理解하지 못하고서, 그 社會形態를 分析解剖한다면 그야말로 漢方醫師가 病의 本質도 잘알지 못하고 方藥合編에 依하여 藥을 지여줌이나 다름업는 그런 宿命的 錯誤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럼으로써 要컨댄 原因을 모르는 結論, 結論으 모르는 原因에 到達할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 社會形態를 科學的으로 正確하게 分析解剖하기 爲하여 爲先解剖分析하기에 必要的 科學的 方法(新 醫師가 近世醫學을 工夫함과 가티)을 學得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면 그 科學的方法은 엇더한 方法이나? 卽 辨證法的 方法이다. 그 辨證法的 方法은 如左히 그 大體를 說明할 수 있다.

二

宇宙의 萬物은 如何한 것(如何한 形態)을 하고-動物(사람도包含)植物, 鑛物, 社會其他를 勿論하고-動的 原則에 依하여 變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各 形態(各自의 特質을 가지고 잇스나)의 變動은 全 宇宙萬物의 變動과 間接 直接으로 有形無形하게 互相聯鎖한다. 換言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엇던 집에 불이 났다고 그 사람의 죽음이란 變動과 그 집의 消滅이란 變動이 各各 自體의 變動에만 繫치는 것이 아니라(永永死滅하는것이 아니다)各各 自體 以外에 다른 形態에 까지 各各 그 自體의 變動의 影響을 波及케하는 것이니, 이

것은 우리가 物理學的 化學的의 分解로써 能히 證明할 수 있는 바이다.

이와 가티 社會形態도 動的으로 不斷히(縱的 橫的으로)變動한다. 그래서 縱的으로는 新舊社會의 變動形態가 互相連鎖하는 同時에 橫的으로는 其他의 社會의 變動形態와 互相連鎖한다. 그러나 한 社會形態가 다른 社會形態로 變動하여감에 舊 社會의 存立全 期間을 통한 不變의 形態로 變動하는것이 아니라. 新舊社會의 形態는 各各그것이 存續하는 中에 不斷히 그 다음 다음의 形態(量的 發展及 質的 變化의 道程을過程하면서)로 變動하여간다.

그래서 各各의 社會形態는 그의 發生에 있어서나 或은必然的 破滅에 있어서 반드시 連鎖한다. 卽 各 形態의 發達階段은 鎖의 一環이 되어서 그래서 各各의 環은 相隣한 一環과 互相連鎖한다. 그러면 이 變動은 何故로 起하느냐? 卽 宇宙萬物의 動的 變動이 不斷히 繫續함에는 그 動的 變動內外에 動的 均衡을 構成하려는 動的 形態가 있어서 均衡—破壞—新 均衡—換言하면, 正—反—合—의 動的 形態를 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으로 無限히 反覆(各環의 連鎖를 成)하나니, 要컨대 이러한 運動過程의 基礎를 成하는 것은 그 各各의 動的 形態의 內外的 矛盾의 發達의 結果이다. 卽 運動過程의 方向을 달리한 力의 對立! 鬪爭의 結果이다.

이와 가티 社會의 發展過程에 있어서도 社會的 各種의 矛盾으로써 이러한 動的 形態의 各環을 構成하며 反覆한다. 그런대 社會的 各種의 矛盾은 그의 主動되는 經濟的 矛盾(生産及 分配 等의 矛盾)과 그의 附動되는 經濟的 矛盾(各 階級の 矛盾)等이 잇나니, 經濟的 矛盾은 生産의 不平均(卽 舊生産의 方法에 『無秩序狀態』)의 運動形態를 낫는 原因이 됨을 알아서, 經濟的 矛盾 等은 各 階級間에 對立—鬪爭—의 運動形態를 낫는 原因 等이 된다. 그럼으로 이러한 矛盾은 正—反—合—의 動的 變動에 依하여 新 社會의 新 形態를 蒼生하는 更新의 原因이 될지언정 舊 社會의 舊 形態를 破壞함에만 쓰치는 結果만을 맺지는 아니한다. 卽 各環의 聯繫는 될지언정 各環의 中斷은 안이된다.』

### 三

以上과 如히 우리는 辨證法의 大體를 學得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醫師가 醫學만을 學得하였다고 卽 時로 患者를 取扱할수업슴과 가티 社會形態를 分析解剖하기는 原則이 되는 學問 卽 辨證法을 學得하였다고 卽 時로 社會를 分析解剖하기 不可能한 것이다. 何故이냐하면 醫師가 醫學을 學□的으로 學得하고, 實踐的 經驗이 업고서 患者를 取扱하려면 病을 곳치기는 姑舍하고, 所謂人自丁이 되기 쉬웁다. 이와 가티 社會에 對한 學問을 學術的으로만 學得하고 實踐的 經驗이 업시 社會의 形態를 分析解剖하려면, 그야말로 實際를

써난 原則論이 되기 쉬웁다. 그럼으로 우리는 醫師에게 學術 外의 實踐的 經驗을 要함과 가티 社會를 分析解剖함에도 爲先 學術的 研究 外에 實際的 形態를 잘 理解하며, 또 그것을 實踐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야 實際를 써난 公式論이 아니되고 公式을 써난 實際論이 아니될 것이다. 何故이나? 하면 우리는 醫師가 病의 症勢를 不顧하고 醫書를 絜해놋코 醫書 그대로만 治療手術하려는 危險과 우리가 公式을 公式化하고, 原則을 原則化하기 爲하여서 實際的 形態如何를 不拘하고 非 實際的으로만 分析解剖하려는 危險과 同一하게 危險視하는 까달이다.